

碩士學位論文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피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2005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趙顯貞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姜大英

수정 Make-up에 있어서

피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Base Make-up

Techniques in Corrective Make-up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趙顯貞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姜大英

수정 Make-up에 있어서
피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Base Make-up
Techniques in Corrective Make-up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趙顯貞

趙顯貞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4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I. 序 論.....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수정 Make-up의 이해.....	4
2. 수정 메이크업의 피부표현 재료와 표현방법.....	8
3. 얼굴의 형태와 얼굴형 수정에 대한 선행연구.....	18
4. 피부색과 화장 색에 대한 선행연구.....	21
III.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피부 표현기법.....	23
1. 얼굴의 형태적 분류.....	23
2. 얼굴의 형태적 결점의 수정 표현기법.....	26
IV. 피부 톤과 피부결의 상태에 따른 피부 표현기법.....	36
1. 피부 톤 결점의 특징적 분류와 수정 표현기법.....	36
2. 피부 결 결점의 수정 표현기법.....	46
V.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피부표현기법.....	47
1.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분류.....	47
2. 노화 피부의 수정 표현기법.....	48
3. 도구를 이용한 노화 피부의 수정 메이크업.....	52
VI. 結 論.....	55
參考文獻	
ABSTRACT	

表 目 次

표1. 메이크업 베이스의 종류 및 사용법.....	9
표2.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종류 및 사용법.....	12
표3. 스틱 파운데이션의 종류 및 사용법.....	13
표4.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종류 및 사용법.....	14
표5. 펄 파운데이션의 종류 및 사용법.....	15
표6. 루즈 파우더의 종류 및 사용법.....	16
표7. 압축 파우더의 종류 및 사용법.....	18

그 립 목 차

그림 1. 루즈 파우더.....	16
그림 2. 둥근형의 얼굴.....	23
그림 3. 타원형의 얼굴.....	24
그림 4. 사각형의 얼굴.....	24
그림 5. 역삼각형의 얼굴.....	25
그림 6. 육각형의 얼굴.....	25
그림 7. 긴 형의 얼굴.....	26
그림 8. 둥근형의 수정 위치.....	26
그림 9. 타원형의 수정 위치.....	27
그림 10. 사각형의 수정 위치.....	27
그림 11. 역삼각형의 수정 위치.....	28
그림 12. 육각형의 수정 위치.....	28
그림 13. 긴 형의 수정 위치.....	29
그림 14.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의 표현.....	29
그림 15. 턱이 비대한 형.....	30
그림 16. 턱이 비대한 형을 수정하는 테크닉(1).....	30
그림 17. 턱이 비대한 형을 수정하는 테크닉(2).....	30
그림 18. 턱이 비대한 형을 수정하는 테크닉(3).....	31
그림 19. 턱이 비대한 형을 수정하는 테크닉(4).....	31
그림 20. 턱이 비대한 형을 수정하는 테크닉(5).....	31
그림 21.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의 수정 메이크업 전.....	33
그림 22.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셰이딩 위치 정면.....	34
그림 23.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셰이딩 측면.....	34
그림 24.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의 수정 메이크업 후.....	34

그림 25. 기미가 있는 사람 수정 메이크업 전.....	37
그림 26. 기미가 있는 사람 수정 메이크업 후.....	38
그림 27. 주근깨 부위를 수정하는 테크닉(1).....	38
그림 28. 주근깨 부위를 수정하는 테크닉(2).....	39
그림 29. 주근깨 부위를 수정하는 테크닉(3).....	39
그림 30. 주근깨 부위를 수정하는 테크닉(4).....	40
그림 31. 주근깨 부위를 수정하는 테크닉(5).....	40
그림 32. 검버섯이 있는 사람.....	40
그림 33. 검버섯을 수정하는 테크닉(1).....	41
그림 34. 검버섯을 수정하는 테크닉(2).....	41
그림 35. 검버섯을 수정하는 테크닉(3).....	41
그림 36. 검버섯을 수정메이크업 전.....	42
그림 37. 검버섯을 수정메이크업 후.....	42
그림 38. 여드름에 의한 붉은 색소 침착이 있는 사람.....	42
그림 39. 붉은 기를 수정하는 테크닉(1).....	43
그림 40. 붉은 기를 수정하는 테크닉(2).....	43
그림 41. 붉은 기 수정메이크업 전.....	43
그림 42. 붉은 기 수정메이크업 후.....	43
그림 43. 다크 서클이 있는 사람.....	44
그림 44. 다크 서클을 수정하는 테크닉(1).....	44
그림 45. 다크 서클을 수정하는 테크닉(2).....	45
그림 46. 다크 서클 수정 메이크업 전.....	45
그림 47. 다크 서클 수정 메이크업 후.....	45
그림 48. 눈 밑 처짐을 수정하는 테크닉(1).....	48
그림 49. 눈 밑 처짐을 수정하는 테크닉(2).....	48
그림 50. 눈 밑 처짐을 수정하는 테크닉(3).....	49
그림 51. 눈 밑 처짐을 수정하는 테크닉(4).....	49
그림 52. 눈 밑 처짐 수정 메이크업 전.....	49
그림 53. 눈 밑 처짐 수정 메이크업 후.....	49

그림 54.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이 있는 사람.....	50
그림 55.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을 수정하는 테크닉(1).....	50
그림 56.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을 수정하는 테크닉(2).....	51
그림 57.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을 수정하는 테크닉(3).....	51
그림 58.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 수정 메이크업 전.....	51
그림 59.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 수정 메이크업 후.....	51
그림 60. Neck lift kit.....	52
그림 61. Face & cheek lift kit.....	52
그림 62. 눈과 볼 살의 처짐이 있는 사람의 메이크업 전.....	53
그림 63. 눈과 볼 살의 리프팅 테크닉(1).....	53
그림 64. 눈과 볼 살의 리프팅 테크닉(2).....	54
그림 65. 눈과 볼 살의 처짐이 있는 사람의 메이크업 후.....	54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일 뿐 아니라 추후 상호작용의 결정요인이 되므로 타인에 대한 이미지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강미¹⁾의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일차적으로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지 살펴본 결과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성인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옷차림새 23.3%, 말씨 5.8%, 헤어스타일 3.0% 순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루키즘(lookism-얼굴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용모에 따른 차별)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외모 중 특히 얼굴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첫인상은 얼굴에서 비롯되는데 얼굴에는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와 사회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변화되는 후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대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람의 얼굴은 모두가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기관이다.²⁾

얼굴을 표현대상으로 하는 메이크업(Make-up)은 현대사회에서 그 사람의 성별, 연령, 건강, 품위의 척도이며,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복, 헤어스타일(Hair style) 등과 함께 토탈 패션(Total fashion)의 한 분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제

1) 이강미,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16

2) 막스 피카르, 조두환 옮김, 사람의 얼굴, Das Menschengesicht, 도서출판 책세상, 1994, p.276

메이크업은 예전과 같이 단순히 화려하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개성과 맞는 얼굴 이미지 연출뿐만 아니라 단점을 수정·보완하여 생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얼굴에 있어서 얼굴의 형태가 주는 시각적 이미지는 매우 커서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굴형태의 단점을 수술이나 다른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피부표현의 명암을 이용한 변화를 주어 얼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얼굴 이미지에 있어 피부색과 피부결이 주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피부 결점의 보완만으로도 얼굴 표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얼굴의 형태 중 얼굴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타원형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얼굴형의 수정 표현 기법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피부색과 피부결의 결점 보완을 위해 여러 가지 피부타입과 피부색 이상증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정 메이크업 피부표현에 있어서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피부의 다양한 이상증세별 교정방법에 대해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피부표현기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얼굴의 형태, 피부의 톤과 피부 결,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분류로 제한하여 피부표현기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피부과학에 근거한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수정 메이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표현기법의 기술에 앞

서 수정메이크업 피부표현의 재료를 숙지한다. 얼굴형과 얼굴형 수정에 대한 선행연구, 피부색과 화장색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둘째 얼굴을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명암에 의해 교정되는 수정 메이크업을 파악하고 이상적인 여성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관련 문헌 자료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 분류기준에 의한 얼굴형 분석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6가지 얼굴형 분류를 기준으로 얼굴형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얼굴형 수정 메이크업을 분석하여 서술한다.

셋째 피부 톤 결점의 특징적 분류를 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른 수정 표현 방법과 피부 결 결점의 수정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피부의 노화상태에 따라 주름의 부위와 종류를 나누어 정리한다. 각각의 분류된 상태에 맞는 테크닉과 도구 이용법을 기술하여 보다 효과적인 노화피부의 피부표현기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된 수정 메이크업에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정메이크업의 이해

아름다움이란 인간의 미에 대한 관심이 작용하면서부터 선별되어 온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 주관의 보편적인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메이크업(make-up)이란 선천적인 자신의 용모를 그 시대와 문화의 필요에 의해서 선호되고 선택된 미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Make-up)이라고 말하는 호칭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화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여성들의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제품과 더불어 제시되는 제품의 사용방법과 메이크업 방법은 많은 여성들의 관심사이다. 특히 여성들은 메이크업으로 본인의 얼굴의 매력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옛날의 메이크업은 화려하고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에 발맞추어 나갔지만, 요즘은 본인의 얼굴의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나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하려는 메이크업은 각본상의 인물묘사나 특수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상황과 장소에 맞는 개인의 좋은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up)으로 이 중에서도 이러한 메이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중심이 되는 수정 메이크업이 되겠다.

메이크업의 단계를 세분화해보면 피부, 눈썹과 눈, 입술 메이크업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피부 메이크업이 갖는 비중은 크다. 얼굴에 나타나는

피부색의 표현에 따라서 눈썹과 눈, 입술 메이크업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메이크업이란, 메이크업으로서 얼굴 각 요소의 형태 및 세부요소를 변형시키는데 사람마다 다른 얼굴 형태 및 얼굴의 세부요소를 일부 변경시켜 무겁게 보이는 부분은 경감시키고 튀어나온 부위는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형된 피부색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형태적 측면에서 수정 메이크업의 성공 여부는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음영의 적절한 조절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있다. 얼굴의 윤곽을 수정하는 방법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굴의 윤곽을 수정하거나 블러셔를 이용하여 얼굴의 무게 중심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 메이크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메이크업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화장 후 색조화장을 위한 기초로서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다. 이는 피부색을 고르게 정리해주고 다음단계의 색조화장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필요한 기초가 된다. 다음 단계는 파운데이션 처리인데 파운데이션이란, 자신의 얼굴형에 따른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단계로서 긴 얼굴형, 둥근형, 사각형, 삼각형 등의 얼굴형을 계란형에 가깝게 표현해줄 수 있다. 파운데이션의 색상에는 명도화의 색상이 있는데 그 명도의 차이를 잘 활용하여 얼굴형을 보완 할 수 있다. 어두운 색상을 이용해 얼굴의 외곽부분을 어둡게 처리를 함으로써 축소효과를 내고, 밝은 색상으로 T존 부위(양 눈썹 바로 위, 이마와 콧등) 및 눈 밑에 발라줌으로써 입체적인 메이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에는 염증이 지나간 흔적, 여드름 자국, 벌어진 땀구멍, 거무스름한 반점 등 다양한 흠이 있는데, 위와 같은 얼굴의 불균형한 피부색이나 주름 등을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히 그 기능과 효과를 고려

하여 표현한다면 메이크업은 얼굴 외양을 수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할 수가 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얼굴은 크게 T존과 V존(얼굴 정면에서 아래턱을 중심으로 한 부위)으로 나눌 수 있는데 T존은 한 단계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V존은 한 단계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여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리데이션 한다. 색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먼저 자신의 피부색과 가장 가까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그 날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에 따라 파운데이션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은 자연스럽게 몸 부위의 피부색과 연결 될 수 있는 색, 즉 목이나 팔 안쪽에 발랐을 때 얼굴색과 가장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파운데이션의 색상으로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색이 갖고 있는 느낌과 고유의 피부색을 고려하여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파운데이션을 부위별로 발라주는 양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데, T존과 O존(입, 코, 눈 주위) 부분에는 피하지방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부자연스럽고 무거워 보이며, T존 부위는 피부의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얇게 바르며, S존(볼) 부분은 피하지방이 많고 기미, 주근깨가 많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발라주면 피부가 무겁게 보일 수 있다.

수정 메이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몇 가지 화장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블렌딩(blending)과 셰이딩(shading)을 들 수 있다. 블렌딩과 셰이딩이란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으로서 색상의 명암 차이를 어두움(shadow)에서 밝음(highlight)까지 점차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이다. 모든 메이크업이란 이런 블렌딩과 셰이딩을 이용하여 착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바로 수정 메이크업도 이런 착시현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메이크업이

실제와 같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란 콧대나 광대뼈와 같이 돌출되어 보이기 위한 부위나 좀 더 넓어 보이고 싶은 부위에 자신이 선택한 기본 파운데이션 색상보다 1-3단계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착시 현상을 얻는 것이다. 한편 쉐이딩이란 들어가 보이고 싶은 부위와 축소되어 보이고 싶은 부위에 브라운과 같은 어두운 색을 선택하여 그 효과를 얻는 것으로 선택한 기본 파운데이션 색상보다 1-3 단계 어두운 색을 사용한다. 반드시 하이라이트 부분과 쉐이딩 부분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는데 눈에 두드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그리데이션을 해야 한다. 하이라이트를 해야 하는 부위는 이마의 가장 튀어나온 부위(forehead), 코뼈 부분, 광대뼈의 튀어나온 부위에서 헤어라인 부위, 아랫입술과 아랫입술 하방부위에서 연결하여 턱 선을 따라 앞쪽으로 사라지게 한다. 쉐이딩을 하는 부위는 들어간 관자놀이 부위에서 뼈가 만져지는 부위 뒤흘, 코뼈 양옆에서 눈썹 앞머리까지 연결되는 주위, 눈꺼풀 위에서 눈썹 밑까지, 광대뼈 아랫부분에서 눈 꼬리에서 내려오는 선의 바깥쪽으로 삼각형의 부위, 윗입술, 아랫입술 바로 밑 부분 등이다.

이와 같이 형태적인 부분의 수정 메이크업은 명암의 원칙을 이용하지만 피부색과 피부결 결점의 수정 메이크업은 고르지 못한 피부의 불균형에 착시 효과를 주어 균형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여드름의 붉은 흔적이나 주근깨, 기미, 노화로 인한 검버섯 그리고 주름 등 피부 결점의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고유의 피부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유의 피부색과 결점이 있는 부위의 피부색의 톤을 고르게 맞추기 위해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의 기능과 여러 색상의 효과들을 메이크업에 적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이렇듯 수정 메이크업은 밝고 어두움을 적절히 표현하는 명암의 기법으

로 착시효과를 주어 얼굴의 윤곽을 수정하여 이상적인 얼굴형에 가깝게 하고 피부의 이상증세로 인한 결점을 제품의 색과 기능, 도구를 이용하여 메이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얼굴의 표현에 있어 기본이 되는 피부표현이 각자의 얼굴형과 피부 결에 맞게 잘 수정되어 표현되었을 때 메이크업을 위한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있다.

2. 수정 메이크업의 피부표현 재료와 표현방법

메이크업에 있어서 테크닉만큼 중요한 것은 화장품의 선택이다. 그 사람에게 맞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곧 훌륭한 메이크업 계획의 시작인 것이다. 해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제품의 홍수 속에서 제품의 기능과 질감, 지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정메이크업의 테크닉을 기술하기에 앞서 다양한 피부표현의 제품들을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

(1)메이크업 베이스의 목적

메이크업 베이스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밀착력을 높여주고 파운데이션 및 색조화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며 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또한 피부색의 보정 효과가 있어 붉거나 결점 있는 피부색을 조절하여 화사하고 고른 피부 톤으로 만들어 준다. 젊은 여성일수록 피지가 많이 분비되어 메이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여드름의 흔적이나 혈색에 의해 피부색이 붉어지기 쉬우므로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요즘 대부분의 메이크업베이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 있어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2) 메이크업 베이스의 종류와 사용방법

- ① 젤 타입(gel type): 청량감이 좋아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 파운데이션의 밀착감을 높여준다.
- ② 리퀴드 타입(liquid type): 끈적임이 적어 지성피부에 적합하다.
- ③ 에센스 타입(essence type): 보습효과가 뛰어나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적합하다.
- ④ 크림 타입(cream type):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 ⑤ 컨트롤 타입(control type): 커버력이 강하므로 잡티가 많은 피부에 적합하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파운데이션의 전 단계로 너무 두껍지 않게 손가락으로 펴 바르거나 스펀지로 두드려 마무리 하는 것이 요령이다. 피부의 유형에 맞게 메이크업 베이스의 타입과 색을 결정하고 지나치게 바르면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밀리게 되므로 적당량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투명 (살색)	색상의 조절 없이 그대로 피부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어떤 피부 톤에 사용해도 무난하다.
그린 (green)	여드름 피부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코나 뺨이 붉은 피부의 교정용으로 사용된다.
퍼플 (purple)	동양인의 노란기가 많은 피부를 생기 있고 맑게 표현한다.
블루 (Blue)	피부를 희게 표현하거나 붉은 기를 교정할 때 사용한다.
오렌지 (orange)	태닝(tanning)메이크업을 할 때, 밝은 톤의 피부를 어둡게 표현할 때 파운데이션이 얼룩지지 않도록 해준다.
화이트 (white)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해 준다.
핑크 (pink)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에 혈색을 부여한다.

2) 컨실러(Concealer)

(1) 컨실러의 목적

결점(기미, 주근깨, 여드름, 상처, 함몰된 부위 등)이 있는 피부 톤을 조절하고 적절히 커버해 주는 제품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파운데이션의 전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컨실러의 종류와 사용 방법

① 리퀴드 타입(liquid type)

커버력이 우수하면서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가벼워 모공을 막지 않고 땀이나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다크 서클(dark circle) 커버에 보다 효과적이며 적당량을 손가락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잡티부위에 가볍게 두드려 밀착시키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② 크림 타입(cream type)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며 그 중 녹색의 컨실러는 뽀루지 등 피부가 붉은 부위에 아주 효과적인 컨실러이다. 브러쉬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듯이 바르고 바른 후에는 콤팩트 파우더로 고정 시킨 후 원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효과가 있다. 메이크업 베이스 후 잡티 부위에 사용한다.

③ 펜슬 타입(pencil type): 입가의 주름, 눈가, 눈 밑 다크 서클, 작은 점, 가벼운 잡티 등을 커버할 경우 사용하며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 다음 사용한다. 앞뒤에 두 가지 컬러가 있으며 눈 밑의 그늘진 부위나 다크 서클에는 밝은 색을 기미나 잡티는 어두운 색을 이용하여 커버한다. 점막펜슬, 립 라인, 눈썹문신 수정용으로도 사용 한다.

3) 파운데이션(Foundation)

누구나 이상적인 피부를 꿈꾸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로 인해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결점이 생긴다. 이러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피부색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표현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의 중요한 기능만큼 종류도 다양하다. 파운데이션은 수분과 유분, 색소의 양과 질, 제조과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며 피부의 질감, 피지 분비량 등에 따라 선택되고 이에 따라 표현되는 효과도 달라진다. 각 성분의 혼합 상태와 비율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수분이나 유분을 베이스로 하여 나머지 성분을 용해시킨 유화 형 파운데이션, 오일왁스에 색소를 분산시킨 분산 형 파운데이션, 수분과 유분을 혼합한 후 고형 화시킨 파우더 형 파운데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³⁾

(1) 파운데이션의 목적

- ① 피부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피부 톤을 조절한다.⁴⁾
- ②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 ③ 피부의 결점을 커버해주어 균일한 피부 톤을 형성하여 원하는 이미지의 피부색을 형성하고 부분 메이크업의 색감과 효과를 높여준다.
- ④ 얼굴의 윤곽을 수정해 주고 입체감을 부여해 준다.

(2) 파운데이션의 종류와 사용 방법

① 리퀴드 파운데이션(liquid- foundation)

유화형(emulsion) 파운데이션이라고도 한다. 수분함량이 많아 촉촉하며 특히 건성 피부 타입에 좋고 유액 타입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과 밀착감

3) 신단주, MAKEUP ARTIST, 삶과 문화, 2002, p.20

4)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7, p.157

이 우수하며 자연스럽고 가벼운 메이크업에 좋다. 크림타입에 비해 커버력과 지속력은 떨어지나 커버력을 원할 때는 소량을 반복해서 바르는 것이 좋다.

표 2.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아이보리 베이지	흰 피부가 사용하는 컬러로 하얀 피부 톤을 원할 때 사용
클리어 베이지	붉은 기가 전혀 없으며, 밝고 화사한 피부 톤을 연출 할 때 사용
라이트 베이지	자연스러운 중간피부와 붉은 기가 있는 피부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부드러운 옐로우 감이 표현된다.
미디엄 베이지	어두운 피부를 세련되게 표현할 때 사용

② 크림 파운데이션 (cream foundation): 유형성(anhyrus)으로 그리스 페인트(grease paint)라고 하며 표현이 매끄럽고 보호막이 형성되어 보습효과가 좋아 건성 피부타입에 좋다. 피부표현이 자연스러운 리퀴드형 파운데이션 보다 커버력이 더 우수하여 피부결점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모든 피부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무난하나 지성 피부에는 부적합하다.

③ 스틱 파운데이션(stick foundation)

유분과 수분을 적당히 배합하여 고체화한 제품이므로 다른 종류의 파운데이션 보다 피부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고 지속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두께 감 때문에 피부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아티스트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표 3.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밝은 핑크 베이지, 밝은 살색	하이라이트용으로 주로 사용
라이트 핑크	밝고 화사한 피부 톤을 표현할 때 사용
핑크 베이지	밝은 피부표현을 원할 때 다른 색상과 섞어 자연스런 피부표현
베이지	중간 톤의 색상으로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표현
어두운 베이지	약간 어두운 피부표현에 사용
다크 베이지	어두운 피부 톤을 표현할 때 사용, 윤곽수정에도 사용 남자 메이크업에도 사용
화이트	분장이나 촬영 시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
아이보리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
황갈색	갈색 피부나 태닝한 피부에 섞어 사용
초코 브라운	윤곽수정이나 분장용으로 사용
어두운 핑크 베이지	어둡고 칙칙한 피부 톤을 혈색 있게 표현할 때 사용
베이지 핑크	중간 피부 톤이면서 칙칙한 피부 톤에 사용
라이트 베이지	붉은 기가 없으며, 베이지보다 밝은 피부 톤에 사용

④ 스킨 커버(skin cover)

피부에 잡티가 많아서 완벽한 커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커버력이 강한 만큼 피부에 느끼는 부담이 클 수도 있다.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클린징(cleansing)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⑤ 파우더 파운데이션(powder foundation)

매트(matte)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휴대하기에 편리하며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어 주로 자외선이 강한 봄, 여름에 많이 사용된다. 피부의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피부에 탄력을 주며 질감이 가볍고 밀착감이 좋으며 스피드 한 피부표현에 좋다. 젖은 퍼프 또는 마른 퍼프로 사용할 수 있는 양용타입의 파운데이션이나 마른퍼프로 사용했을 때는 피부를 쉽게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성피부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 4.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라이트 베이지	밝은 피부 톤에 적합
옐로우 베이지	옐로우 기가 도는 건강한 피부 톤을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
부르밍 베이지	블러셔를 한 듯 혈색 있게 표현되므로 중년의 여성에게 적합
베이지	어둡고 차분한 메이크업을 원할 때 사용

⑥ 펄 파운데이션(pearl foundation)

화장품 회사에 따라 그 명칭과 질감이 다르나 대개 크림타입이나 리퀴드 타입이 많다. 주로 글리터링 룩(glittering look)과 샤이니(shinny)한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며 피부표현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인 광택의 효과까지 표현 할 수 있다. 펄 파운데이션은 샤이닝(shinning)한 표현의 기본단계로 자연스러운 연출을 원할 때는 다른 파운데이션과 섞어서 사용하며 눈두덩이나 볼 뼈, 코, 이마, 턱밑 등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그 위에 펄 파우더나 펄 크림을 발라주면 느낌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펄 파운데이션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와 같은 신체 부위에 바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 사용했을 때 얼굴이 부어 보이거나 입체감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표 5.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베이지	건강해 보이는 내추럴 한 피부 톤을 표현할 때 사용
골드	태닝(tanning)한 피부의 하이라이트용으로 사용하면 효과적
쿠퍼	어두운 피부색상이나 태닝한 피부에 사용

4)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1) 파우더의 목적

- ① 파운데이션의 유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번들거림을 방지한다.
- ② 피부에 밀착감이 높아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 ③ 블루밍(blooming)효과로 화사함과 우아함을 더해준다.

(2) 파우더의 종류와 사용 방법

파우더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분말 형 파우더(loose powder)와 압축형 파우더(pressed powder)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루즈 파우더(loose powder)

피부의 유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피부표면을 보송보송하고 맑게 유지해준다. 단 티-존(T-zone)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유분감이 많으므로 또 눈두덩이는 효과적인 아이섀도우(eye shadow)의 표현을 위해 끈적임 없이 발라주되 건조한 부위는 가급적 가볍게 발라주는 것이 좋다. 커버력이 적은 제품으로 투명한 피부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림 1. 루즈 파우더

표 6.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화이트	하이라이트 및 피부 톤을 밝게 표현할 때 사용
패일 피치	원래의 피부 톤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보다 한 톤 밝고 화사한 피부 톤을 원할 때 사용
아이보리	화이트보다 밝은 톤의 피부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사용 어두운 피부의 하이라이트에 사용
투명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시에 사용. 파운데이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여 주며 모든 피부에 사용
라이트	세련된 베이지계열의 피부 톤으로 연출할 때 사용

베이지	
핑크 베이지	핑크색이 도는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얼굴에 혈색이 돌게 하므로 어두운 피부 톤을 연출 할 경우 사용
소프트 오렌지	소프트한 살구 톤이 가미되어 중간 피부 톤을 차분하면서도 맑고 화사하게 연출 할 때 사용
베이지 핑크	웨딩 메이크업에 사용되며 화사함을 표현할 때 사용
베이지	약간 어두운 피부 톤일 경우 사용
오렌지	태닝 메이크업에 주로 사용되며 건강한 피부 톤으로 표현
브라운	어두운 피부 톤을 표현할 경우나 윤곽 수정, 남자 메이크업에 사용
민트그린	붉은 색감의 피부 톤을 교정하는데 사용
라벤더	황색 피부 톤을 중화시켜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 톤으로 표현 할 때 사용

② 펄 파우더(pearl powder)

펄이 함유된 제품으로 화려한 피부표현이나 주름이 많은 피부에 사용하면 빛 반사에 의해 주름의 골이 완화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펄 파우데이션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화려한 피부표현 효과를 볼 수 있다. 주로 시머링(shimmering) 메이크업 시 사용되며 샤이니 한 피부 톤을 연출하기에 좋다. 브러쉬나 퍼프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이마, 광대뼈, 턱 등의 하이라이트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③ 압축 파우더(pressed powder)

분말 형 파우더에 비해 피부표현이 두텁고 색상이 비교적 짙게 표현된다.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 톤을 교정할 수 있어 피부색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파우더 위에 덧바르거나 메이크업 베이스 다음 단계로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표 7. 종류 및 사용법

색상	사용부위 및 사용방법
투명	투명 파우더를 압축하여 투명 감 있는 피부표현에 사용
다크 브라운	약간 붉은 기가 있으므로 블러셔나 윤곽수정에 사용
라이트 베이지	중간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화이트	하이라이트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
베이지 핑크	피부 톤을 화사하게 표현하며, 윤기 없는 피부 톤을 혈색 있게 표현
라벤더	황색 피부 톤을 중화시켜 생기 있고 화사하게 표현할 때 사용
민트 그린	붉은 피부색 교정 시 사용하며 붉은 색감이 있는 부분에만 사용
오렌지	피부 톤을 혈색 있고 건강하게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블러셔로 사용
내추럴 베이지	중간 보다 어두운 피부 톤에 사용

3. 얼굴의 형태와 얼굴형 수정에 대한 선행연구

인간 얼굴의 평균 길이는 18.6cm, 넓이는 12.95cm, 이마의 넓이는 12.65cm 라고 한다.⁵⁾ 얼굴형의 수정을 위해 아주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얼굴 전체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얼굴에 있어서 그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는 이마와 광대뼈, 두 뺨, 턱이다. 이 형태들은 골격의 형태나 지방의 정도에 따라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거나 뚜렷이 각이 지거나 뾰족하기도 할 것이고 둔한 느낌이나 날카로운 느낌이 들 수 있다.

5)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석사논문, 2000 p.38

얼굴형태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30년대 미국 할리우드의 Westmore가 형제들이 골상학을 연구하면서 이루어 졌는데 사람의 얼굴이 일반적으로 일곱 가지 형태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계란형, 장방형, 정방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 형이 그것인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본형을 합친 형일 수도 있다.

Davis.⁶⁾는 얼굴형을 계란형(oval), 정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삼각형(triangular), 역삼각형(inverted triangle), 마름모형(diamond), 직사각형(rectangular)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시각적 특징(얼굴의 너비와 길이의 비례, 곡선과 각진 얼굴의 윤곽)을 설명하였다.

또 이혜성⁷⁾은 여성의 얼굴유형을 직사각형, 둥근형, 타원형,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다이아몬드 형, 서양배 형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고, 각 얼굴 유형의 특징을 이마와 볼과 턱 세부부분의 상대적 넓이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였다.

Louise Picard Villa⁸⁾도 얼굴형의 수정을 위한 메이크업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얼굴형은 계란형, 둥근형, 역삼각형, 삼각형, 마름모형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저자는 일곱 가지 유형의 얼굴형 중 계란형이 표준적인 미인 형으로 메이크업의 기준 형이 되고 모든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한 형이지만 경우에 따라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권혜숙⁹⁾은 얼굴형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측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목적을 두고 설문, 연구한 결과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긴 형의 4가지 얼굴형에서 계란형이 가장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며 육감적이고 이상적이라 판단하였고 두 번째로 긴 얼굴형이 그 다음은 둥근형과 사각형으로 판

6) Marian L.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0, p.83~86

7) 이혜성, 메이크업, 정문각, 1996, p.21~23

8) Louise Picard Villa, Cosmetology, Gage educational publishing co., 1987

9) 권혜숙, 얼굴형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측정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996, p.6

단하였다.

이경하¹⁰⁾는 여러 얼굴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얼굴을 정확히 분석, 이론적으로 기술하였다.

한명숙¹¹⁾은 얼굴형을 수정하기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기술하며 둥근 얼굴, 사각형 얼굴, 다이아몬드 형 얼굴, 긴 얼굴, 역삼각형 얼굴, 타원형 얼굴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저자는 메이크업의 실례까지 들어 보이며 일러스트를 이용한 그 형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해 놓고 있다.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된 얼굴의 형태를 종합해 보면 타원형(oval), 육각형(hexagonal), 삼각형(triangular), 역삼각형(uninverted triangle), 직사각형(oblong), 정사각형(square), 둥근형(round), 서양배 형(pear-shaped), 다이아몬드 형(diamond-shaped)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기하학적으로 짧은 형, 중간형 그리고 긴 형 세 가지로 구별되어 속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은 턱과 볼, 이마의 상대적 넓이, 곡선과 직선에 의한 둥글고 각진 얼굴의 윤곽, 대칭에 의해 분류된다. 얼굴인식에서 얼굴 이미지(Image)가 갖는 특징으로 분류될 얼굴의 수는 무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한 가지 형태보다는 여러 변수에 의해 복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어떤 얼굴의 형태라고 구분 짓기 위해서는 얼굴 형태의 기본이 되는 형태들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얼굴 분석을 하고 그보다 더 세분화된 얼굴형의 결점을 정리하여 수정하는 메이크업의 연구가 필요하다.

10) 이경하, 눈썹 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36

11) 한명숙, 마귀아주 예술, 청구문화사, 1999, p.89

4. 피부색과 화장 색에 대한 선행연구

피부표현의 재료로 쓰이는 화장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색이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하지만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 색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물의 고유색상을 파악해야 한다. 고유색상을 파악하고 나서야 메이크업 적용에 있어서의 피부색이 결정된다. 얼굴의 피부색은 단색이 아니며 항상 같은 색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이나 건강상태 등 여러 조건에 의해 변하는 것이 얼굴의 피부색이다. 피부의 본래색은 손목 안쪽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푸른빛을 띠는 피부는 피부표면 근처에 혈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밝은 색이 혈색을 좋아보이게 한다. 노란빛이 많이 도는 피부색은 연한 노랑이나 베이지를 사용했을 경우 황갈색 같은 느낌을 준다.¹²⁾ 보통 피부색은 흰 피부, 보통 피부, 검은 피부 등으로 밝기의 범위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색의 구성 가운데 명도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 실제 피부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미묘하다.

한국여성의 피부색은 크게 황색계피부와 핑크색계 피부로 나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황색 계는 노르스름한 피부(Olive Skin)와 짙은 황갈색 피부(Tawny Skin)로 나누고, 핑크색계는 흰 피부(Ivory Skin)와 희고 붉은 피부(Ruddy Skin)로 나눌 수 있다.¹³⁾

한국 표준색표집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피부색을 붉은 톤의 흰, 보통, 짙은 피부와 보통의 톤에 흰, 보통, 짙은 피부로 그리고 황색 톤에 흰, 보통, 짙은 피부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색채학자 고바야시 시코는 한국, 일본인 등의 피부색은 6.5YR 7/3의 색

12)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논문, 1999, p.10

13) 태평양화학 미용 연구실, 부분미용 전문미용교재, 서울, 1981, p.71

채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였다.¹⁴⁾

김지은¹⁵⁾은 색채 색차계(Chrome Meter CR-200)를 이용하여 의상 색에 미치는 피부색의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그 결과는 화장 색에 의해 풀이되었다. 일반적으로 화장은 자신의 피부색조와 유사한 색으로 하며 극히 짙은 황갈색 피부를 제외하고는 혈색이 좋아 보이도록 약간의 붉은 계열의 색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얼굴 피부색이 평균보다 약간 붉게 측정된 것은 이러한 화장법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우윤정¹⁶⁾의 피부색과 얼굴색, 화장 색에 관한 연구를 보면 화장색은 1.2YR에서 8YR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4YR에서 4.6YR사이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색상으로는 얼굴색보다 약간 더 붉게 나타나고 있다.

고유의 얼굴 피부색은 화장색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동일인에 있어서도 부위별로 다른 색을 보인다. 이러한 피부색이 갖는 변인인 연령,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피부색의 차이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화장색 또한 이러한 피부색에 대한 여러 문헌을 토대로 어둡고 밝은 정도의 피부 색차가 아닌 피부상태에 따른 색소 이상의 결점과 노화로 인한 피부색의 차이와 피부 결점을 수정하는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14) 최영훈, 색채학개론, 미진사, 1990, p.104

15) 김지은, 우리나라 도시 여성의 기성복 색채 계획에 관한 연구- 피부색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 p.23-28

16) 우윤정,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9, p.54

III. 얼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피부 표현기법

1. 얼굴의 형태적 분류

앞의 장에서 서술한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얼굴형 분류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얼굴형은 타원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긴 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형태가 타원형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얼굴 형태를 아는 것은 메이크업의 기본인 만큼 반드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기 위한 메이크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신의 원래 얼굴형이다. 우선 자신의 얼굴특징이나 장점, 결점을 파악한 후 적합한 색과 명암을 조화시켜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화장법이다.

기본적인 얼굴형의 분류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특징적인 얼굴형의 결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둥근형(Round face)

둥근 얼굴형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얼굴형이다. 얼굴형을 수평방향으로 3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앙부분이 넓어 보이는 형을 말한다. 헤어라인은 둥글게 보이며, 양턱은 짧고 각이 없으며 뚜렷한 곡선을 이루며 이 얼굴형은 짧은 얼굴에 속하고, 얼굴 넓이와 길이가 거의 같아 보인다. 낙천적이고 발랄함이 느껴지는 반면 동안(童顔)의 인상으로 인해 엘레강스(elegance)한 분위기는 연출하기 어렵다.



그림 2. 둥근형

2) 타원형(Oval face)

표준적인 미인 형으로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얼굴형이다. 타원형은 중간 부분이 가장 넓어 보이고 윗부분은 중간 넓이이며 아래 부분은 가장 좁다. 매우 이상적인 얼굴형이라 말할 수 있다. 헤어라인은 둥글며 양턱은 좁고 각이 없이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굴의 길이는 짧지도 길지도 않으나 이마와 얼굴 길이가 넓이보다 보통 길게 보인다.



그림 3. 타원형

3) 사각형(Square face)

사각형은 얼굴을 3등분하면 넓이가 거의 같아 보인다. 헤어라인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이마가 넓다. 양쪽 턱은 돌출되어 보이고 각을 이룬다. 따라서 사각형은 이마와 턱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얼굴형은 짧으며 얼굴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같다. 직사각형의 얼굴은 사각형의 얼굴과 구조가 비슷하나 얼굴의 넓이보다 길이가 길고 긴 얼굴형에 속한다. 직사각형의 얼굴은 전



그림 4. 사각형

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이미지로 여성스럽고 성숙한 느낌인 반면 사각형의 얼굴은 의지가 강해 보이고 행동적이면서 자발적으로 보이며 여성다움이나 부드러운 이미지는 부족해 보인다.

4) 역삼각형(Uninverted triangular face)

역삼각형의 얼굴은 윗부분 즉 이마가 가장 넓으며 아래턱 부분이 가장 좁고, 뾰족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헤어라인 부분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나 하트 모양을 이룰 경우는 얼굴형에서 헤어라인이 강조된다. 얼굴의 길이는 넓이보다도 약간 긴 편이나 삼각의 형태에 따라서 길게도 혹은 짧게, 중간형에 속하기도 한다. 아래턱 부분으로 갈수록 넓이가 좁아져 불안정하고 가냘퍼 보이고 예리한 느낌을 주며 청순하고 적극적이며 활기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림 5. 역삼각형

5) 육각형(Hexagonal)

육각형의 얼굴은 중간 부분이 가장 넓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은 넓이로 보인다. 헤어라인은 주로 수평이나 뾰족한 머리형이나, 하트형을 이룰 수도 있다. 양턱은 일반적으로 각지거나 곡선을 이룰 수도 있으며, 길이는 보통 넓이보다 약간 길다.



그림 6. 육각형

6) 긴 형(oblong face)

긴 얼굴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얼굴형이다. 얼굴 3등분의 넓이는 거의 동일하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는 전체적으로 길쭉한 얼굴형이다. 긴 얼굴형은 대부분 이마가 넓고 턱이 돌출되어 있으며, 코가 긴 편이다. 성숙하고 어른스러워 보이는 인상이다.



그림 7. 긴 형

2. 얼굴의 형태 결점의 수정 표현기법

1) 얼굴의 형태적 분류에 따른 수정 베이스 메이크업

(1) 둥근형(Round face)

둥근형은 세로길이 방향으로 늘려 둥근형이 자연스럽게 감춰지도록 만드는テクニック이 중요하다.¹⁷⁾ 먼저 코가 길어보이도록 이마에서 코끝, 턱선 끝으로 세로의 형태로 길게 하이라이트를 준다. 이마 옆 부분과 둥글면서 턱 밑 무거워 보이는 부분을 셰이딩 해준다. 이 때 목선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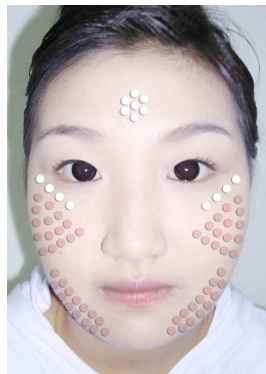


그림 8. 둥근형

블러셔의 위치는 귀에서 입술 밑을 향해 삼각형으로 해준다. 시선을 앞으로 이끌어줌으로써 둥근 얼굴을 좀 더 입체감 있고 날렵하게 보이게 한다.

17) 이은임, *화장 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p.66

(2) 타원형(Oval face)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얼굴형태이다. 얼굴형의 장점을 살려 광대뼈와 턱뼈는 밝게 하이라이트를 주어 더욱 돋보이게 한다.

블러셔의 위치는 눈동자 밑과 귀의 중간 교차점 부분이고 둥근 형태로 해 준다.



그림 9.타원형

(3) 사각형(Square face)

각진 얼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동그스름하게 보이도록 메이크업 한다. 이마 양옆과 각진 헤어라인, 양쪽의 각진 턱뼈 부분에 쉐이딩을 넣어주고 이마중앙에 다소 둥근 듯한 느낌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블러셔는 수평의 느낌으로 해준다. 또한 사각형의 얼굴을 더욱 강조하여 개성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밤색의 블러셔 보다는 짙은 갈색으로 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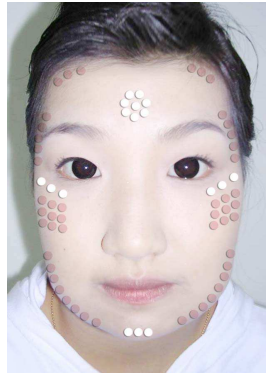


그림 10. 사각형

고 방향은 입 가장자리 방향으로 가도록 칠하고 볼뼈 위에는 너무 밝은 색이나 너무 강한 색 보다는 중간색을 택해서 칠하면 얼굴개성 표현에 효과적이다.¹⁸⁾

18) 이은임, 상계서, p.69

(4) 역삼각형(Uninverted Triangular face)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 쪽의 얼굴 폭이 넓고 턱 끝이 뾰족한 얼굴형이다. 턱 아랫부분이 지나치게 야위어 보일 때는 하이라이트를 넣어 도톰하게 보이도록 표현한다. 볼 뼈 위가 좁아 보여 바로 위와 연결되는 관자놀이에서 머리까지 밝게 하이라이트를 준다. 넓은 이마 양옆과 턱뼈 아래, 볼 밑 부분에 셰이딩을 넣는다.

블러셔는 하이라이트와 셰이딩의 중간부분에 수평의 느낌으로 볼 뼈를 감싸듯 해 준다.



그림 11.역삼각형

(5) 육각형(Hexagonal)

우선 이마의 양 옆 부분과 턱 선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이마 중앙 역시 다소 넓게 하이라이트를 넣는다. 튀어나온 볼 뼈 부분과 뾰족한 턱 끝에는 셰이딩을 넣어 부드러운 느낌을 만든다. 블러셔는 볼 뼈의 셰이딩 부위에 반원 형태로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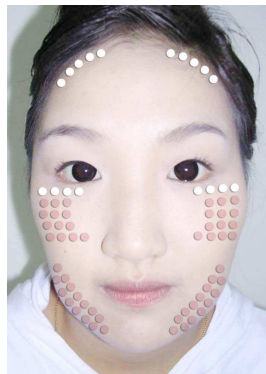


그림 12. 육각형

(6) 긴 형(Oblong face)

얼굴이 좁으면서 긴 형은 얼굴이 다소 짧아 보이도록 수정한다. 이마 윗부분, 턱선 끝에 셰이딩을 넣어 얼굴의 길이가 다소 짧아 보이도록 하고 하이라이트를 가로의 느낌으로 처리하여 볼이 퉁퉁해 보이도록 연출한다.

블러셔는 볼 뼈를 감싸듯 수평 느낌의 삼각형태로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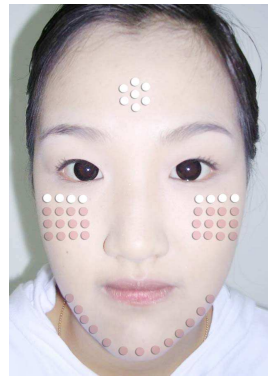


그림 13. 긴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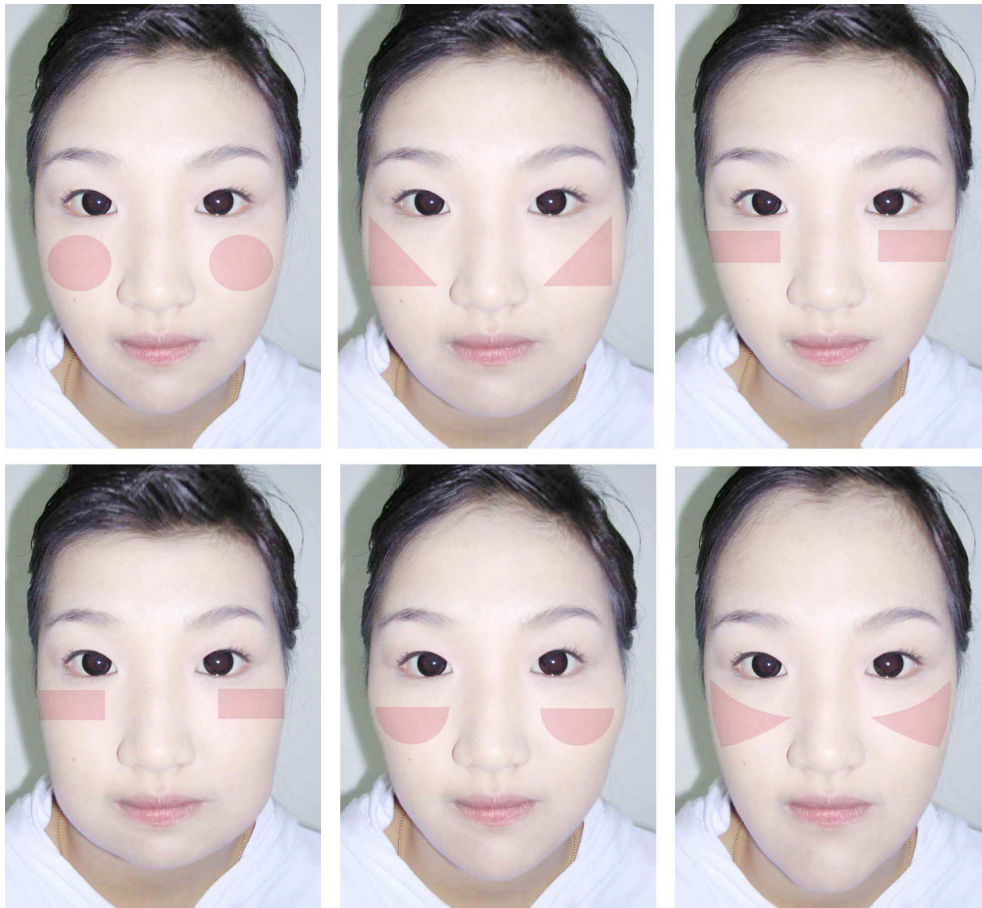


그림 14. 얼굴형에 따른 블러셔의 표현

2) 얼굴 형태의 특징적 결점 분류와 수정 표현기법

(1) 턱이 비대한 형

주로 비만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으며 40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얼굴형으로 목과 얼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턱에 탄력이 없어 흔히 말하는 이중 턱의 모양이다.

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하고 파우더를 필요한 만큼의 양만큼 가볍게 해준다. 브러쉬로 얼굴에 남은 파우더를 털어낸다.

② 셰이딩용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짙은 회갈색 블러셔로 볼 뼈 밑 부분을 야위어 보이게 셰이딩 한다. 이 때 블러셔의 색상은 연한 회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어떠한 색상도 무관하나 주로 짙은 회갈색이나 와인 색 혹은 브라운이 주로 쓰인다.

③ 같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짙은 회갈색 블러셔로 이중 턱으로 인해 경계선이 모호한 턱선 끝 부분의 아래 부분을 셰이딩 해 준다. 아래 턱 윤곽을 따라 턱 끝 부분까지 터치 해 준다. 이 때 셰이딩이 완성될 때까지의 표현에 있어 셰이딩의 느낌이 거칠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④ 볼 뼈 밑 부분을 셰이딩한 짙은 회갈색 윗부분에 따뜻한 느낌의 블러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서 색상을 연결해 준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일 경우 핑크(pink)나 옅은 자주(mauve) 혹은 구리빛(bronzer)의 색상을 사용한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리치 브라운(rich brown), 와인색(burgundy), 핑크(pink), 오렌지(orange)색상을 사용한다. 이러한 색상을 어둡게 윤곽선을 잡은 셰이딩 부분 위로 연결해 색감을 넣어 그라데이션 해준다. 볼 뼈의 윗부분과 귀의 중앙부분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눈동자 밑을 향해 볼 뼈를 감싸듯이 터치해 준다. 턱 선의 윤곽선도 이와 같이 부드럽게 연결하여 표현해 준다.



그림 18.



그림 19.

⑤ 얇은 블러셔 브러쉬나 스폰지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볼의 셰이딩 부분 밑으로 하이라이트용 블러셔나 아이섀도우 혹은 밝은 색상의 압축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한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일 경우 회색이 도는 흰색(off-white) 또는 밝은 노랑(light yellow)의 색상을 사용하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일 경우 밝은 허니 옐로우(honey yellow) 또는 밝은 복숭아 색(light peach)을 사용한다. 이 하이



그림 20.

라이트의 범위는 볼 뼈 밑 부분과 턱 선의 셰이딩 부분의 사이이고 이러한 표현은 얼굴 윤곽의 축소와 경계가 모호한 얼굴의 윤곽을 또렷이 잡는데 있어서 셰이딩의 효과를 극대화 해 준다.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위 그림의 모델은 피부가 희고 노란기가 없다. 이러한 메이크업 테크닉을 한국인의 얼굴을 통해 표현했을 때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다. 먼저 한국인의 피부색은 노란기가 있어 위와 같이 블러셔 만으로 셰이딩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에 있어 1~2단계 어두운 색상으로 셰이딩을 준 뒤 블러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셰이딩을 해주어야 한다. ⑤의 과정에서 하이라이트 색상을 선택할 때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아이보리나 아이보리에 가까운 흰색을 사용하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회색이 도는 흰색 또는 복숭아 색을 사용한다. 이는 모델의 피부색을 고려한 색의 차이이다.

(2) 광대뼈가 나온 사람

광대뼈가 나온 얼굴형은 자칫 날카롭고 강해 보일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상선택이 중요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미간을 넓게 표현해 준다. 블러셔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여 인상이 강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므로 블러셔의 위치가 중요하다. 오렌지 계열의 블러셔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볼 안쪽으로 둥글리며 펴 바르면 어려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① 스폰지를 사용하여 미간을 넓어 보이도록 T-zone 부위에 하이라이트용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 눈 바로 아랫부분 역시 하이라이트를 해준다. 돌출된 광대뼈 부위에 피부색 보다 한톤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광대뼈를 감싸듯이 셰이딩 해 준다. 나머지 부분은 고유의 피부색과 비슷한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펴 발라준다. 이 때 하이라이트 색상과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표현해 준다.

② 파우더 퍼프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투명 파우더를 해 준다.

③ 귀의 중간위쪽에서부터 눈동자 밑까지 볼 뼈를 감싸듯 둥글리며 블러셔를 해준다. 색상은 어두운 색조보다는 약간의 화려하고 밝은 톤이 좋다. 어두운 색은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의 윗부분으로 좀더 밝은 색으로 연결하여 블러셔의 느낌을 살려준다. 그리고 안정된 느낌의 아이보리나 회색을 띤 화이트로 눈 바로 밑 부분에 하이라이트의 느낌을 살려준다.

파운데이션과 블러셔로 셰이딩을 하고 난 후의 얼굴의 느낌은 수정 메이크업 전의 얼굴에 비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나 얼굴형이 긴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얼굴형의 긴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이마와 눈 밑 하이라이트와 함께 헤어라인과 턱 끝 셰이딩도 해야 한다.

(3)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

긴 얼굴의 형태에 속한다. 앞니들의 교차교합, 때로는 이를 악 물었을 때 위아래 앞니 간에 틈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심하여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부정교합 없이 턱의 길이만 긴 경우에는 긴 턱, 긴 얼굴이라고 한다. 어릴 때에는 턱이 돌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춘기에는 아래턱의 성장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 턱이 돌출될 가능성이 크다. 동양인들은 턱이 돌출된 사람도 많지만 서양인은 아래턱이 작은 경우가 더 많다.



그림 21.

① 돌출된 턱으로 인해 다소 얼굴이 길어 보이므로 눈 밑과 이마 중앙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수평의 느낌으로 주어 볼이 통통하게 보이도록 한다.

색상은 하이라이트용 파운데이션이나 고유의 피부색보다 1-2단계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돌출되어 보이는 턱 끝 부분과 헤어라인에 1-2단계 어두운 색으로 셰이딩을 해주되 수평의 느낌으로 해 주고 턱 선을 타고 윗 방향으로 넓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나머지 부분은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부분과 셰이딩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듯 표현하여 준다.

② 파우더 퍼프나 브러쉬로 투명 파우더를 해 준다.

③ 블러셔 용 브러쉬를 이용하여 턱 선 끝부분의 셰이딩 부분에 한 번 더 셰이딩을 해준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연한 회색이나 회갈색을 사용하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약간 어두운 회색이나 갈색을 사용한다. 사용한 셰이딩 색 보다 좀더 밝은 색의 프레스트 파우더로 셰이딩 부분과 입술 밑 부분의 사이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준다. 볼 부분의 블러셔는 턱의 무거운 느낌과는 달리 시선을 돌출된 턱 부분이 아닌 볼 부분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표현해 준다.

④ 이마 중앙부분과 눈 밑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수평의 느낌으로 넣어주어 셰이딩의 표현효과를 극대화 시켜준다. 아이보리나 흰색의 프레스트 파우더나 하이라이트용 새도우를 사용한다.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턱이 앞으로 돌출된 사람의 경우에도 긴 턱으로 인해 긴 얼굴에 속한다. 그래서 수정함에 있어 초점이 되는 부분도 긴 얼굴형의 수정과 비슷하다. 무거워 보이는 긴 턱의 부분에 셰이딩을 해서 돌출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더욱 무겁고 돌출되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셰이딩의 색을 강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턱이 무거워 보일 수 있다. 점차적으로 밝은 색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IV. 피부 톤과 피부결의 상태에 따른

피부 표현기법

1. 피부 톤 결점의 특징적 분류와 수정 표현기법

얼굴에 있어서 피부 톤은 그 부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피부 톤을 정리하기 위해 피부표현에 앞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피부에 큰 결점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만으로도 피부 톤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피부에 기미나 주근깨, 다크 서클 등 결점이 눈에 드러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결점의 특징과 부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제품으로 수정해야 한다. 피부 톤 결점의 특징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기미가 있다. 주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보이며 부위는 이마나 눈 주위, 볼, 입 주위, 얼굴 전체에 나타 나기도한다. 기미는 얼굴 이미지에 있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어렵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다.

둘째로는 주근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가 희거나 건성인 여성에게 많다. 붉은 주근깨와 갈색의 주근깨가 있다. 흰 피부에 생겨 주근깨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때때로 콧등이나 볼에 생기는 주근깨는 귀여움이나 어린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여성스러움이나 우아한 느낌은 부족해 보인다.

셋째로는 검버섯이다. 노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인점이라고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로 햇볕에 노출된 부위에 생기게 된다. 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 즉 얼굴이나 손과 팔 등에 많이 생긴다. 얼굴에 있는 검버섯은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나 손이나

팔에 생긴 검버섯으로 인해 메이크업을 한 얼굴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나이드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런 검버섯으로 인해 더욱 나이가 들어 보이고 노인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넷째로는 여드름에 의한 색소침착인데 이는 붉게 나타나거나 흉터로 남아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갈색의 색소침착은 피부 톤의 수정으로 커버할 수 있으나 여드름의 염증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속되는 반복으로 인한 피부결의 변형과 붉은 부위는 좀더 세심한 수정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로 다크 서클이 있다.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지는 것을 다크 서클 혹은 블랙 서클(Black Circle)이라 한다. 흔히 눈 밑에 그늘이 진다고 말하는데 반달 모양으로 거뭇거뭇하고 칙칙해 보인다. 다크 서클이 있는 경우 피곤해 보이거나 아파 보여 인상 자체가 어두워져 보일 뿐 아니라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사람에 따라 푸른빛을 띄기도 하고 검은빛을 띄기도 한다.

1) 피부 톤 결점의 수정 표현기법

(1) 기미

기미는 눈 밑이나 광대뼈 부위에 생기거나 이마나 눈두덩이에도 생길 수 있다. 부위가 넓을수록 수정 부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가벼운 피부표현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림의 모델은 볼 전체와 눈두덩이에 까지 작은 기미가 넓게 퍼져있어 수정해야 할 부위가 넓다.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라도 기미 색과 피부색의 색 차이를 고려해 피부색보다 한톤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미부위가 좁은 경우에는 펜슬 타입의 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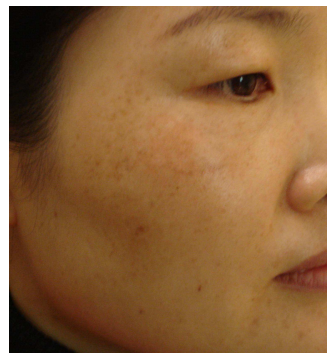


그림 25.

실러나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하고 그림의 모델과 같이 기미부위가 넓은 경우 리퀴드 컨실러와 펜슬타입의 컨실러를 함께 사용한다.

① 피부색보다 한톤 어두운 펜슬타입의 컨실러로 비교적 크고 짙게 보이는 기미 부위를 커버한다.

② 기미의 전체적인 부위에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두드리듯 발라준다.

③ 프레스트 파우더를 한 후 피부색 보다 한 톤 어두운 색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한다. 이마, 눈 밑과 T존 부위에는 피부 톤과 비슷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한다.

④ 루즈 파우더로 마무리 한다.

기미를 커버하기 위해 지나치게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거나 많은 양의 컨실러를 사용하였을 경우 티슈로 눌러 유분기를 제거한 후 파우더를 해야 한다. 유분기를 제거하지 않고 파우더를 했을 경우 피부표현이 거칠어지고 무거워 보인다.



그림 26.

(2) 주근깨

주근깨는 붉을 수도 있고 기미와 비슷하게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띠 수도 있다. 다음은 붉은 주근깨의 수정 메이크업이다. 컨실러의 색상을 허니 옐로우 톤(honey-yellow tones)으로 한다. 피부색 보다 약간 어둡게 표현될 수도 있으나 피부 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으로 그러데이션 해 준다.



그림 27.

① 그림 28.에서 모델은 이미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발라 어느 정도 주근깨를 수정한 상태이다. 좀더 완벽한 주근깨의 교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림 28.

② 모델의 주근깨는 붉은 기가 도는 갈색이고 모델의 피부는 희고 부드러워 보인다. 위의 사진에서 사용한 리퀴드 파운데이션 보다 두꺼운 형태의 크림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것이 주근깨를 가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29.

③ 파운데이션 용 브러쉬나 스폰지로 모델의 스킨 톤에 맞는 색상의 크림 파운데이션을 주근깨 부위에 펴 바른다. 주근깨의 부위가 넓다고 해서 얼굴 전체에 크림 파운데이션을 펴 바

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근깨가 없는 볼과 이마, 턱 부위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한다. 스폰지나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의 파운데이션으로 눈 주변과 턱과 목의 경계선을 그라데이션 해준다.

④ 루즈 파우더로 가볍게 마무리한다.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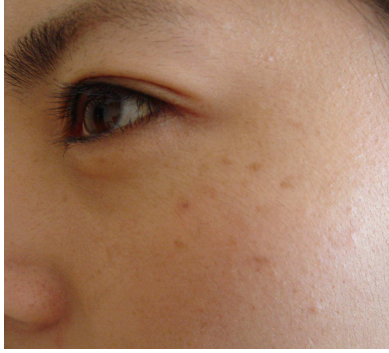


그림 30.



그림 31.

그림30.과 31.은 주근깨가 있는 부위를 수정 메이크업 한 것인데 주근깨가 넓은 부위에 있지는 않으나 색이 갈색으로 짙고 점과 같은 형태로 있어 펜슬타입의 컨실러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다. 짙은 색의 주근깨는 쉽게 커버되지 않으므로 여러 번 반복하여야 하는데 이때 펜슬타입의 컨실러는 매트하고 커버력은 뛰어나지만 그라데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밀리거나 뭉치기 쉽다.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함께 반복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한다.

(3)검버섯

① 사진에서 보이듯 모델은 이미 메이크업이 된 상태이다. 원래의 나이에 비해 적당히 젊어 보이고 검버섯이나 기미 등 다른 결점들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모델의 손은 수정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서 얼굴과의 부조화로 보여지고 있다.



그림 32.

② 얇은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옐로우 베이스(yellow-based)의 컨실러를 발라 검버섯을

가려준다. 작은 팁 브러쉬를 이용해 소량의 컨실러를 두드려져 보이는 점들에만 바른다. 브러쉬의 끝부분을 이용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그라데이션 한다. 이 때 워터 프루프(water proof) 컨실러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그림 33.

③ 삼각형 모양의 웨지 스폰지(wedge sponge)로 워터 프루프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바른다. 손가락 사이와 손톱 주위에는 문질러 바르는 대신 문치지 않도록 가볍게 두드려준다. 손바닥과 손톱 부분, 손가락 끝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닦아준다.



그림 34.

④ 파우더 퍼프로 투명 파우더를 가볍게 두드려준다. 손과 손목의 경계 부위에도 파우더로 선이 생기지 않도록 파우더를 해 준다.



그림 35.

⑤ 티슈로 파우더나 손에 있는 유분기를 닦아낸다.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 손톱 부위를 깨끗이 털어내어 메이크업이 옷이나 다른 곳에 묻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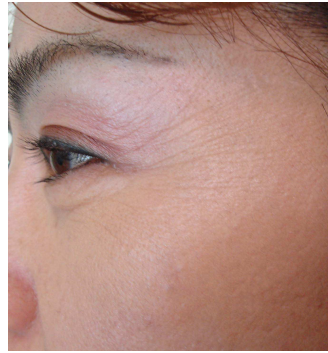


그림 37.

그림36.은 리퀴드 파운데이션만으로 피부표현을 한 것이고 37.은 컨실러와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노화로 인해 거칠고 잡티가 많은 피부상태이기 때문에 매트한 파운데이션 보다는 리퀴드나 크림 타입이 적합하다. 피부색 보다 한 톤 어두운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두드리듯 반복하여 발라준다. 같은 색상이나 핑크 톤이 가미된 크림타입 파운데이션으로 덧발라준다. 검버섯을 커버해 주되 피부 결이 거칠어 보이지 않게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검버섯이 있는 눈 밑이나 광대뼈 부분에는 펄 파우더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파우더로 마무리한다.

(4)부스럼이나 여드름, 발진에 의한 붉은 기 교정

① 밝은 편인 피부색에서 붉은 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의 피부 톤과 비슷한 색상의 컨실러 크림을 골라야 하지만 붉은 부위를 덮을 정도의 약간 짙은 색이어야 하겠다. 대부분 붉은 기를 수정할 때 밝은 노란기가 도는 올리브(yellow-olive)색을 사용한다.

② 컨실러 크림 또는 파운데이션으로 붉은 부



그림 38.

위를 수정 할 때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좁은 부위를 수정할 때는 작은 팁 브러쉬를 사용한다. 발진이나 부스럼에 의한 붉은 결점을 수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컨실러를 바른 가장자리에 V자형 스폰지(a wedge sponge)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발라 그라데이션 해 준다. 만약 붉은 기가 도는 부분이 넓어서 파운데이션을 바를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스폰지로 얼굴에 남은 컨실러를 펴주는 정도로 마무리 한다. 파우더 퍼프로 루즈 파우더를 해주거나 가볍게 파우더 브러쉬로 크림 파운데이션의 유분을 잡아준다.



그림 39.



그림 40.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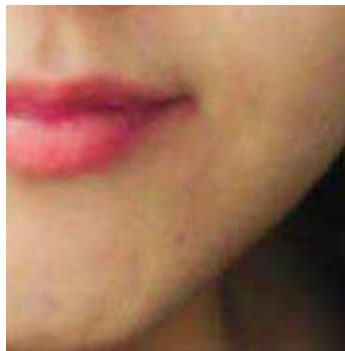


그림 42.

그림41.은 여드름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턱 부위에 색소 침착을 보이고 있다. 리퀴드 컨실러로 가볍게 커버한 뒤 컨실러 용 브러쉬

로 여드름 부위를 마무리 해준 뒤 파운데이션 한다. 피부 톤을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여드름으로 인해 고르지 못한 피부 결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진에서 보는 그림 42.의 피부 결은 촬영에 있어 빛 반사와 조명에 의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고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피부 결을 수정하기 위해 두꺼운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시도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고 염증이 있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볍고 피부 톤을 수정 하는 정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다크 서클

① 모델의 피부색은 올리브색에 가깝다. 푸른기가 도는 다크 서클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밝은 복숭아색의 컨실러가 효과적이다.

사진①에서 올리브색의 크림 파운데이션의 색상은 다크 서클 부위의 피부색보다 약간 더 어둡다. 다크 서클 부위의 피부는 얼굴의 나머지 부분보다 얇다. 그래서 정맥이나 색소, 혈관의 푸른빛이 드러나게 된다. Salmon color(연어살빛이 도는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파운데이션보다 어두워 보이는 피부색을 중간 톤으로 맞출 수 있다.

② 컨실러용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과 눈두덩이에 컨실러를 바른다. 눈의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무 많은 양을 눈 주위에 바르지 않도록 한다.



그림 43.



그림 44.

눈꺼풀이나 눈 밑 등의 민감한 부위에는 스펀지에 남아있는 양의 컨실러를 이용해 표현한다. 이는 뭉침이나 제품의 낭비를 막는 좋은 표현습관이다.

③스폰지로 나머지 부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리퀴드나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바른 위에 파운데이션을 부드럽게 두드려 발라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의 경계선이 없도록 그라데이션 해준다. 퍼프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투명파우더로 마무리 해준다.



그림 45.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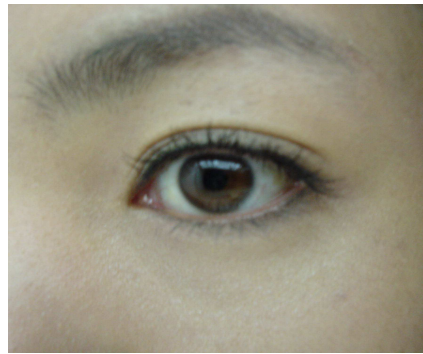


그림 47.

그림 46.의 눈 밑 다크 서클 부위에는 다크 서클의 푸른 기를 커버하기 위해 붉은 기가 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하였고 눈두덩이 부위에는 붉은 기가 없는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다. 파우더 과정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부색 보다 밝은 파우더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다크 서클을 더 검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피부색에 맞는 파우더를 사용해야 한다.

2. 피부 결 결점의 수정 표현기법

1) 흠 자국이 있는 피부

주로 여드름에 의한 흉터와 상처에 의한 함몰된 흉터가 대부분이다. 여드름에 의한 흉터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의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붉게 보이거나 패어있는 자국이 남게 된다. 붉은 흉반은 시간이 지나고 약제를 쓰면 좋아지고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서도 수정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만 함몰된 흉터나 모공 확장증이 생긴 피부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다. 볼이나 코끝에 오렌지 껍질같이 파여져 있을 경우 파운데이션 선택과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 ① 피부색 보다 밝은 색의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피부의 패인 부분을 메우며, 그 부분이 어둡게 보이지 않도록 한 후 피부색 톤 또는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 ② 펄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서 반짝이는 광택효과로 흠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착시 효과를 유도한다.
- ③ 프레스트 파우더나 루즈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표현을 가볍게 마무리한다.

위의 과정은 흠 자국이 얕은 경우의 수정과정이며 흠 자국이 비교적 깊은 경우는 피부색보다 밝은 크림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야한다. 피부의 패인부분을 크림타입 파운데이션으로 메우고 피부색 톤보다 약간 어두운 톤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한다. 이는 흠 자국이 크거나 깊을 경우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메우기에 무리가 있고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메이크업을 한 후 세안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V.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피부 표현기법

1. 피부의 노화 상태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노화는 25세부터 시작돼 30세를 전후로 눈에 띄게 주름이 생기게 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연령에 따라 주름의 모양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주름 수나 깊이, 범위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주름에는 목에 나타나는 일직선 형태의 선상주름, 얼굴이나 목덜미에 나타나는 교차된 선에 의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형성되는 도형주름, 고령자의 피부에 나타나는 측면주름이 있다.¹⁹⁾

대체적으로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노화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크게 눈에 띄는 주름은 생기지 않는다. 단지 표정을 과도하게 짓거나 피부 건조가 심한 경우 눈이나 입 주위 등 피부 조직이 얇고 움직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잔주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주름은 그 모양이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선상주름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30세를 전후로 하여 주름이 눈에 띄게 되는데 눈이나 입 주위의 잔주름이 깊어지고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탄력성이 감소해 주름과 피부의 이완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시기는 40대이다. 피부의 지방층,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가 진피층에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피부의 재생력이 감퇴돼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탄력 저하와 수분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피하지방조직의 감소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 지지력의 감소 및 궁극적으로는 피부를 지지하는 근육력의 저하를 야기 시킨다.²⁰⁾ 이 때문에 특히 이마, 눈꺼풀, 뺨 등에 피부의 늘어짐이 나타나게 된다. 뺨과 목둘레에서 볼 수 있는 교차된 선

19) 김기연, 피부의 자연노화와 광 노화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미용 학회지 제3권 제1호, 1997, p.34

20) 김기연, 상계서, p.35

에 의해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형성하는 도형 주름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노화 피부의 특징으로는 주름의 증가, 피부의 이완, 피부의 광택과 윤기 저하, 피부 긴장감의 저하, 거칠어진 살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수정 메이크업의 방법 중 하나이다.

2. 노화 피부의 수정 표현 기법

(1) 눈 밑 처짐

① 파운데이션 중에서 모이스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이스춰 파운데이션은 눈 꼬리 주름이나 다른 주름들을 수정할 때 역시 쓰인다. 파운데이션을 스폰지로 얼굴 전체에 펴 바른다.



그림 48.

② 컨실러 용 브러쉬로 옐로우 베이스의 핑크 빛이 도는 컨실러를 눈 밑 처진 부위에 파운데이션과 섞이도록 발라준다. (노화피부인 것을 감안하여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 겹도는 느낌일 때는 크림과 컨실러를 섞어서 쓰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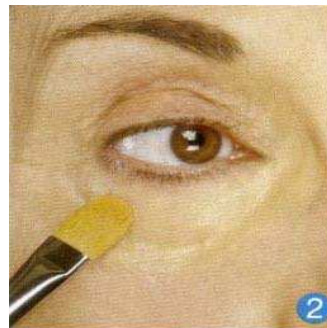


그림 49.

③ 투명파우더로 얼굴의 유분 기를 잡아준다.

④ 블러셔 용 브러쉬로 귀의 중간부분에서 시작해서 볼 뼈를 감싸듯이 아래로 눈동자 밑의 위치까지 블러셔를 한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옅은 자주(mauve), 핑크, 짙은 보라(plum), 브론즈(bronze)의 옅은 회색에서 검은 갈색에 이르는 난조색 톤(earth-tone)을 사용한다. 어

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좀더 짙은 톤의 와인색(burgundy), 브론즈, 핑크,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크림 블러셔를 더해 주는데 볼의 중앙부분에서 귀의 중간 부분 방향으로 살짝 두드려 준다.

이 때 역시 두 가지의 블러셔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되어야겠다.

⑤ 좀 더 얇은 블러셔 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볼의 블러셔 윗부분 가장자리에 블러셔 색 보다 2-3단계 밝은 색상으로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윗부분과 눈 밑 처짐이 있는 부위에 좀 더 밝은 색상으로 연결하여 표현한다.



그림 50.



그림 51.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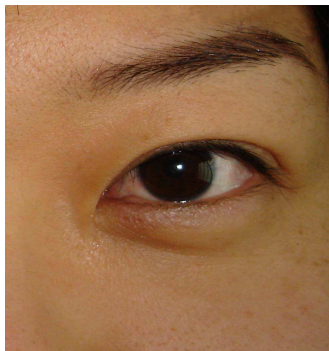


그림 52.



그림 53.

그림52.의 모델은 눈 밑 처짐이 심한 편은 아니나 눈 밑 처짐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눈 밑이 어두워 보인다. 눈 밑 주름진

부위에 피부색 보다 밝은 색의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두드리듯 표현해 준다. 그림48.과 달리 옐로우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는 피하는 것이 좋다. 파운데이션을 반복하여 표현한 뒤 눈 밑 부위에 밀림이나 뭉침이 없도록 유분기를 제거해 주고 파우더를 해 준다. 파우더는 피부색 보다 밝은 것을 사용하고 아이 언더라인 부위에 펄 파우더나 흰색의 펄 색도우로 표현해 준다.

(2) 눈 꼬리 주름과 웃음주름

① 컨실러 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눈꼬리의 주름과 웃음 주름의 움푹 들어간 부위에 그 부위 보다 조금 넓게 컨실러나 하이라이트용 파운데이션을 펴 바른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약간의 하이라이트 느낌을 주기위해 매우 밝은 아이보리(light ivory)나 밝은 피치 핑크(light peach pink), 밝은 노랑(light yellow)을 사용한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밝은 피치 허니톤(light peach-honey tones)이나 밝은 옐로우 허니톤(light yellow-honey tones)을 사용한다.

웃음선과 눈의 가장자리의 주름, 이마, 입술 주위의 주름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움푹 들



그림 54.



그림 55.

어간 주름에 약간의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컨실러나 하이라이트용 파운데이션이 너무 두껍게 느껴 질 때는 모이스춰 크림이나 리퀴드 파운데이

션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② 이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름부위에 브러쉬로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손가락을 이용해 두드려서 주름이 패인 곳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이 매꾸어 지도록 두드려 주어야 한다. 손가락에서 나는 체온이 그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스폰지를 사용하여 고유의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펴바른다. 이 때 하이라이트를 한 주름 부분의 컨실러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연결하여 바른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름의 정도나 깊이, 상태가 다르므로 테크닉을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③ 파우더 퍼프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의 유분기와 컨실러의 유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명 파우더를 해 준다.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그림 56.



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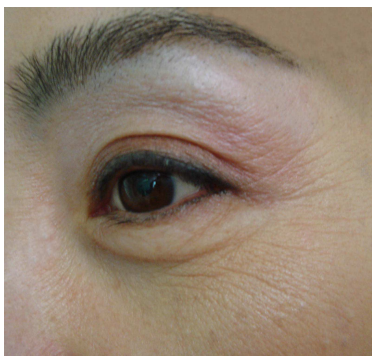


그림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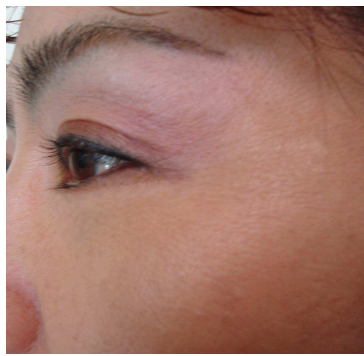


그림 59.

노화로 인해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결이 거친 느낌이다. 크림 파운데이

션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름이 있는 부위에 브러쉬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파운데이션을 해준다. 눈 밑 처짐이 있는 부위는 그림 51.52.의 설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표현되면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 그 이후 파우더 역시 두껍게 한다면 피부가 건조해 보여 수정 메이크업은 실패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투명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해준 뒤 약간의 펄의 느낌을 준다.

3. 도구를 이용한 노화 피부의 수정 메이크업

그림과 같은 리프트 시트(lift sheet)는 눈과 볼, 얼굴, 목으로 그 사이즈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조각들(pieces)은 한쪽면의 테이프를 제거하면 접착력이 있고 짧고 긴 두 개의 다른 길이의 고무줄에 묶여져 있다. 고무줄은 원하는 길이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얼굴과 주름의 상태에 따라 한 조각에 하나의 고무줄만 연결할 수도 있고 두개의 시트를 하나의 고무줄로 연결하여 주름을 리프팅할 수도 있다. 한쪽면의 테이프를 제거 후 얼굴의 주름 부위에 부착하거나 리프팅의 강도에 따라 주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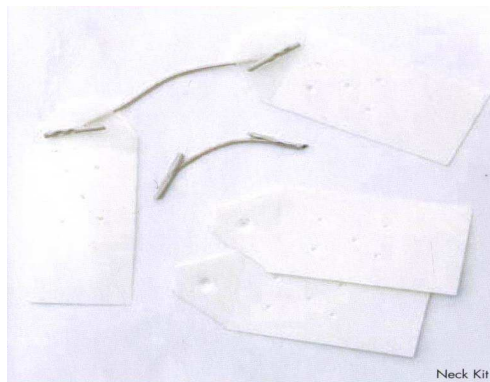


그림 60. Neck lift-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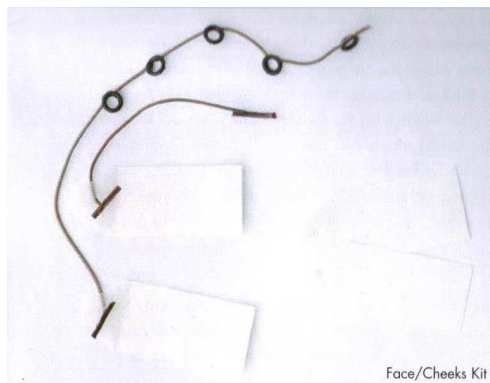


그림 61. Face & cheek lift-kit

두개의 조각을 하나의 고무줄로 연결하였을 경우 하나의 조각을 부착 후 머리의 뒤쪽을 가로질러 다른 한쪽면의 얼굴에 부착하여 리프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눈 처짐과 볼 살 처짐의 리프팅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portrait of a woman with curly blonde hair,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This is the 'before' image in the first row of the facial analysis.

1

그림 63.

(2) 컨실러 또는 파운데이션으로 부착시킨 시트의 반짝거림을 덮어주고 파우더로 마무리 해준다. 표현이 끝난 후 머리카락으로 시트와 고무줄의 흔적을 잘 커버한다.

그림 출처: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그림 64.

2)목의 주름 리프팅

목의 주름은 가로의 형태로 시작해서 피부의 이완을 동반하며 교차되는 선을 보인다. 위의 눈과 볼 살 처짐의 리프팅과 마찬가지로 목의 주름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시트의 부착 위치와 방향이 결정 되겠다.



그림 65.

일반적으로 가로의 형태를 보이며 처지는 목의 주름은 다음과 같이 리프팅 할 수 있다.

(1) 귀와 턱뼈아래의 부위에 45°의 각도로 시트를 부착시키고 나머지 한 쪽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다. 기대하는 리프팅의 정도에 따라 고무줄의 길이를 조절한다. 고무줄의 끝을 잘라 핀에 걸어 귀의 뒷 머리에 고정한다.

(2) 목선과 어깨선의 중간 부분 양쪽에 가로 방향으로 시트를 부착한다. 고무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두개를 연결한다.

(3) 컨실러 또는 파운데이션으로 부착시킨 시트의 반짝거림을 덮어주고 파우더로 마무리 해준다. 표현이 끝난 후 머리카락으로 시트와 고무줄의 흔적을 잘 커버한다.

VI. 結 論

여성은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단점은 보완,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미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수정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고,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부 표현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부표현기법을 제시하여 메이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일차적으로 보여 지는 것은 얼굴의 형태와 피부색 그리고 피부결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수정 메이크업의 기술이다. 간단한 수정 메이크업으로도 형태변화를 주어 얼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수정 메이크업에 있어서 피부표현 기법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정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의 연구에 앞서 메이크업의 테크닉만큼 중요한 좋은 재료의 선택과 그 유형과 특성, 색이 주는 수정효과, 사용법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둘째, 관련 문헌자료를 토대로 얼굴형을 분류하고 어떠한 얼굴의 형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또 가장 이상적이고 기준이 되는 얼굴형인 타원형의 얼굴형으로의 수정 메이크업 테크닉을 분석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얼굴형 결점들을 예로 들어 그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얼굴형은 타원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긴 형으로 분류하였고 둥근형은 얼굴이 길어보이게 사각형은 얼굴이 동그스름해 보이게, 역삼각형은 뾰족한 얼굴형을 도톰하게 보이도록 육각형은 각진 얼굴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긴 형의 얼굴은 얼굴이 다소 짧아보이도록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얼굴형 수정의 이상적인 형은 타원형이다. 또한 얼굴형의 결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턱이 비대한 형은 회갈색 블러셔를 이용해서 경계가 모호한 턱 부분에 웨이딩을 하고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핑크나 옅은 자주 혹은 구리빛 색상의 블러셔를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리치 브라운, 와인색, 핑크, 오렌지의 색상으로 먼저 표현한 웨이딩 부분을 연결하여 그라데이션 한다. 하이라이트 색상은 피부색이 밝은 경우 회색이 도는 흰색, 밝은 노랑을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에는 밝은 허니 옐로우, 밝은 복숭아 색이 효과적이었다. 한국인의 피부색은 노란기가 있어 위와 같이 블러셔 만으로 웨이딩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에 있어 1~2톤 어두운 색상으로 웨이딩을 준 뒤 블러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웨이딩을 해주어야 한다.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아이보리나 아이보리에 가까운 흰색을 사용하고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의 경우 회색이 도는 흰색 또는 복숭아 색을 사용한다.

광대뼈가 나온 사람의 얼굴형 수정의 경우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상 선택이 중요하다.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으로 광대뼈를 웨이딩 하고 블러셔의 단계에서 색상 선택은 어두운 색조보다 화려했고 밝은 톤으로 하여야 한다. 파운데이션과 블러셔로 웨이딩을 하고 난 후의 얼굴의 느낌은 수정 메이크업 전의 얼굴에 비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나 얼굴형이 긴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긴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이마와 눈 밑 하이라이트와 함께 헤어라인과 턱 끝 웨이딩도 해야 한다.

턱이 앞으로 돌출된 얼굴형은 턱선 끝부분에 셰이딩을 하는데 피부색이 밝은 경우 연한 회색이나 회갈색,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는 어두운 회색이나 갈색을 사용한다. 셰이딩의 색을 너무 강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턱이 무거워 보일 수 있다. 점차적으로 밝은 색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평의 느낌으로 한 하이라이트는 셰이딩의 표현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피부 톤과 피부 결 결점을 분류하여 각각의 결점 별로 수정 메이크업 테크닉을 분석하였다. 붉은색의 주근깨에는 옐로우 베이스의 크림 파운데이션, 갈색의 기미나 주근깨에는 피부색 보다 한 톤 어두운 컨실러, 검버섯에는 노화로 인해 거칠고 잡티가 많은 피부상태이기 때문에 매트한 파운데이션 보다는 리퀴드나 크림 타입이 적합하다. 다크 서클에는 올리브색의 컨실러와 셀먼컬러(Salmon color)의 파운데이션 한국인의 경우 붉은기가 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이 여드름에 의한 붉은기가 있는 피부는 옐로우 올리브색의 컨실러를 사용한다. 흠 자국이 있는 피부는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펄 파운데이션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피부의 노화상태에 따른 표현기법에서 눈 밑 처짐이 있는 경우 옐로우 베이스의 핑크빛 컨실러를 해주고 눈 밑으로 집중되는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블러셔를 해준다. 피부색이 밝은 경우 옅은 자주, 핑크, 짙은 보라, 브론즈색이 효과적이었으며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 좀더 짙은 톤의 와인색, 브론즈, 핑크, 오렌지색을 사용한다. 한국인의 경우 눈 밑 주름진 부위에 피부색 보다 밝은 색의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두드리듯 표현해 준다. 서양인과 달리 옐로우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눈 꼬리 주름과 웃음 주름이 있는 얼굴은 피부색이 밝은 경우 하이라이트 느낌을 주기위해 매우 밝은 아이보리나 밝은 피치 핑크, 밝은 노랑을 사용하며 피부색이 어두운 경우 밝은 피치 허니 톤이나 밝은 옐로

우 허니 톤을 사용한다.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표현되면 주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고 그 이후 파우더 역시 두껍게 한다면 피부가 건조해 보여 수정 메이크업은 실패에 이른다. 그러므로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투명 파우더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해준 뒤 약간의 펄 느낌을 준다. 노화로 인한 피부의 주름과 이완을 수술이 아닌 도구를 이용하여 일시적 리프팅 효과 기법을 시도하였다. 사진으로 제시한 리프팅 시트의 사용법과 그 효과를 눈과 볼 살의 처짐, 목의 주름 두 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여 이는 이마의 주름이나 그 외의 노화로 인한 피부의 주름과 이완된 부분에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구를 이용한 일시적 리프팅 효과의 한계점으로는 도구의 특성상 모델의 헤어스타일이 목선 이상으로 길 경우로 제한되는 점을 들 수 있다.

피부표현의 수정만으로 얼굴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으나 얼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피부표현에 있어 약간의 시각적 변화만으로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한히 분류될 수 있는 피부상태에 따라 그 제품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연구 과정 중 제품에 대한 분석과 테크닉 서술 과정을 병행함에 있어 피부표현 제품의 다양하지 못함을 느꼈다.

앞으로 수정메이크업에 있어서 피부 표현만이 아닌 얼굴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표현 기법 연구가 필요하며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는 제품의 분석과 변수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 內 文 獻]

- 고재숙 외, 피부과학, 수문사, 2000
- 권경애,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권혜숙, 얼굴형이 여성의 신체적 매력측정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996
- 김기연, 피부의 자연노화와 광 노화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미용 학회지 제3권 제1호, 1997
- 김지은, 우리나라 도시 여성의 기성복 색채 계획에 관한 연구
- 피부색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7
- 막스 피카르, 조두환 옮김, 사람의 얼굴, Das Menshengesicht,
도서출판 책세상, 1994
- 신단주, MAKEUP ARTIST, 삶과 문화, 2002
- 우윤정,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강미, 인상학적 수정 메이크업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생물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경하, 눈썹 형태에 따른 얼굴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의 효과와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은임, 화장 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혜성, 메이크업, 정문각, 1996
최영훈, 색채학개론, 미진사, 1990
태평양화학 미용 연구실, 부분미용 전문미용교재, 서울, 1981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外國文獻]

Atuko Seko, Maquillage マキアージュ, 求龍堂, 1988
Eve Pearl, Plastic Surgery Without the Surgery, Wanner Books. Inc,
2004
Louise Picard Villa, Cosmetology, Gage educational publishing co., 1987
Marian L.Davis,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y, 1980

기 타

<http://www.makeupforever.co.kr/index.html>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http://opendic.naver.com/>

<http://www.acnestory.com/>

ABSTRACT

The Study of Base make-up Techniques in Corrective make-up

Cho, Hyun Jeo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make-up is emphasized in modern society as a field of total fashion in hair-style, person's sex, age, health and clothes are measure as ones charm and communication.

Make-up is not a standard of beauty that is standardized by fad but more in various values, standard beauty of the age and individualized culture.

Women understands their strength and weakness and found the way to supplement the weak point and maximize the strong point to work up their way and effectively revised to seek for beauty.

The research study is about techniques of skin expression that play much of a role which became basis in make-up revising and

most about ultimate purpose of revising make-up.

Through the research, it is our purpose to present systematic and specific skin expression techniques in order to utilize it as basic data for make-up.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factor that controls facial image but among them for the most part facial formation, complexion and color of the skin appears primarily.

With simple amendment make-up, facial image can be changed without surgical operation.

Result of skin expression study technique in amendment make-up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efore research of expression notation of amendment make-up it describes in detail the importance of choosing fine material, its type and characteristic, effectiveness of color in amendment

Secondly, basis of connection in related literature data we sorted face style accordingly as to on which facial form has which image and analyzed amendment make-up technique on took the example on the most idealistic oval style face and conducted actual analysis of the techniques on the faults.

Thirdly, it describes and sorts the cause of faulty complexion by analyzing each flaw skin amendment make-up techniques per each case.

Yellow based cream foundation for red flickers, honey yellow concealer for brown discoloration or flickers, concealer with yellow

base for blotches, olive color concealer and salmon color foundation for dark circle, yellow olive color concealer for the reddish skin cause of pimple and skins with scars is most effective by using liquid foundation and pearl foundation.

Fourth, performed temporarily lifting effect to wrinkle skin and slackness of the age was not done by surgical operation but by using a tool.

Directions of lifting seat and the effectiveness is presented on picture and it describes in detail divided from eye and saggy cheek and wrinkles of a neck that can be applied in wrinkles of forehead or wrinkles of skin by different aging and slackened part.

Though a special trait of tool, there is some drawback in using this temporarily lifting effect which where a models hair length had to be as long as up to the neckline.

Not only facial expression techniques research is necessarily but also other essential facial expression research is required on fast changing various products through variable research analysis.